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 | 당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5. 15.(월) 11:00 < 5.16.(화) 조간 > 배포 2023. 5. 15.(월)

인도네시아와 'e-모빌리티' 협력 개시

- 자카르타에서 「한-인니 e-모빌리티 협력센터」 현판식, 센터는 금년 9월 개소
- 기반시설(인프라)·인력·연구개발(R&D)·제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추진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이창양)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'e-모빌리티'(전기 오토바이·전기차)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. 장영진 1차관은 5.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, 다단(Dadan) 인니 에너지부 총국장(차관급)이 참석한 가운데 "한-인니 e-모빌리티 협력센터" 현판식을 가졌다.

산업부는 '23. 9월 완공될 동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니에 국산 전기차 65대 및 전기 이륜차 90대, 충전기 71기를 시범 보급하고, 이와 함께 △전기차 A/S센터 구축, △정비·생산·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니의 'e-모빌리티'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.

* 한-인니 전기차 협력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('22~'26년), 총 180억 원, 주관기관 : 한국자동차연구원

현판식에 직후에 진행된 하르타르토(Hartarto)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'e-모빌리티' 협력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으며, △현지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(R&D), △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설계 지원, △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등을 위해 향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. 아울러 장 차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'양국 정부 간 e-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' 체결을 인니 경제조정부에 제안하였다.

그간 인니 등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, 최근 인니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동화 지원 정책에 따른 아세안 전기차 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 산업부는 자동차 내수시장이 크고 전기차 관련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동 협력모델을 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여,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최보선 (044-203-43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하 (044-203-432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인니 전기차 산업 및 ODA 사업개요

□ 인니 전기차 산업현황

○ **(판매)** '22년 판매는 '21년 665대 대비 약 16배 증가한 **10,357대**

	2018	2019	2020	2021	2022
전기차 판매	-	-	6	665	10,357

* 출처: SNE Research

- '22년 中 SAIC社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인니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으나, '23.1분기 현대차가 이를 제치고 **판매 1위로 도약**

* 현대차 인니 전기차 점유율: '22년 19.6%(2위)→'23년 1분기 57.8%(1위)

○ **(생산)** '22년 전기차 **생산은 총 10,289대**(中 SAIC 8,422대, 현대차 1,865대)

* 출처: 인니 자동차산업협회(GAKINDO)

□ 한-인니 전기차 협력 ODA 사업* 개요

* 공식 사업명: 「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용 태양광 충전 e-vehicle 시스템 구축」

○ **(충전 인프라)** 완속 60기, 급속 8기, 복합* 3기 건설

*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이륜차에 충전

○ **(전기차 보급·A/S)** 전기차·전기이륜차 **보급**(155대), 정비를 위한 **A/S센터 구축**(2개소) 및 관련 **전문인력 양성**(350명)

○ **(제도개선 지원)** 수원국 관계자 초청·연수(20명)를 통해 전기차 보급 관련 **정책 제언 수행**

